

# 정상체중 중학생의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체형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

이주연\* · 유조안\*\*

## 초 록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 의하면, 청소년의 주관적인 체형인식은 사회문화적으로 이상화된 체형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체형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사회문화적으로 이상화된 체형 기준은 젠더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체형인식, 체형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 성별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정상체중 중학생의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체형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성별 차이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 참여자 중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정상체중에 해당하는 남녀 중학생 2,403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체형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신을 저체중 또는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정상체중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에 비해 체형만족도가 낮았고, 체형만족도가 낮을수록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체형만족도는 저체중인식 및 과체중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체중인식은 남학생의 체형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의 체형만족도에는 반대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과체중인식은 남녀 학생 모두의 체형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각 성별집단에서 체형만족도는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자아존중감, 체형인식, 체형만족도, 구조방정식모형, 성별 다집단 분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joanyoo@snu.ac.kr

##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외모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2012, 2014)의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모'는 우리나라 13-18세 청소년이 '공부'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의 조사에서도 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외모와 신체 조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외모지상주의와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모지상주의(lookism)란 외모를 개인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외모로 인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풍조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성, 인종, 종교 등과 같은 사회적 차별의 요소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김기란, 최기호, 2009).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관련된 편견과 차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나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외모 관리를 자기계발의 일종으로 간주하지만, 외모지상주의는 개인과 사회에 큰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Rhode, 2010).

이름다운 외모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체형의 경우, 과거에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살 찐 몸매가 매력적인 체형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이와 반대로 마른 몸매가 매력적인 체형으로 간주되고 있다(Swami, 2006; Rhode, 2010). 오늘 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대중매체와 상업 광고 등을 통해 여성의 마른 몸매와 남성의 근육질 몸매가 이상적인 체형의 표준으로 묘사되어 왔다(조윤주, 2009). 사회문화적으로 이상화된 몸매의 기준은 청소년의 주관적인 체형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2014a)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 체질량지수는 정상체중 또는 저체중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체형을 '살 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남자가 20% 이상, 여자가 30% 이상이었다. 우리나라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실제 체형에 비해 자신의 체형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객관적으로 측정된 체질량지수는 정상 범위였으나 스스로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은, 2006; 장현숙, 2006; 정인경, 2006).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실제 체형과 상관없이 마른 체형을 가장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했고, 자신의 체형을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김명희, 최미경, 김은영, 윤영희, 2012; 김영란, 장현숙, 안미령,

2011; 김정순, 김영남, 2009; 송현정, 문현경, 2014).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객관적인 체형 조건과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체형과 별개로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비만 또는 저체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살을 빼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이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이상적 몸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한 외모 관리 행동을 조장하여 오히려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몸짱’, ‘착한 몸매’ 등의 신조어가 유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몸매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개인적 노력의 결실이자 사회적 경쟁력을 상징하게 되면서,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집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이어트와 몸매 관리를 시도하게 되었다(박은정, 정명선, 2013). 보건복지부(2014b)에 의하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중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의 비율은 최근 수 년 간 계속해서 50%를 웃돌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남자 청소년의 70% 이상, 여자 청소년의 80% 이상이 체중 조절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이 중 대부분이 체중 감소를 시도했고 남학생의 경우 체중 감소를 시도한 비율만 큼이나 체중 증가를 시도한 비율도 높았다(임희진, 박형란, 구현경, 2009). 같은 조사에서 남학생의 10%, 여학생의 20% 정도가 단식, 구토, 부적절한 약물 복용 등의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중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지나친 몸매 관리로 인해 신체 건강까지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체형 기준을 이상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객관적으로는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이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이상적 몸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체형만족도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구의 많은 연구자들은 여성의 날씬한 몸매와 남성의 근육질 몸매를 이상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왔다(Bordo, 2003; Cash & Smolak, 2011). 이들은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불만족은 섭식장애를 겪는 소수의 임상 집단이나 비만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상체중인 사람들도 흔히 경험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체형인식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저해하는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상적으로 규정된 체형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체형의 차이가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저해한다고 설명해왔다.

한편, 서구의 연구자들은 체형인식과 체형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 젠더(gender) 관점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먼저, 전통적으로 신체상왜곡이나 체형 불만족은 여성의 문제로 연구되었다(Striegel-Moore, Silberstein & Rodin, 1986).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사회문화적 대상화와 이를 내면화한 여성 스스로의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꾸준한 지지를 얻어왔다(Fredrickson & Roberts, 1997; McKinley, 2011). 그러나 남성의 신체상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남성의 외모 집착이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Pope, Phillips & Olivardia, 2002). 최근에는 사회문화적으로 남녀의 이상적 몸매가 젠더에 기초한 기대(gender-based expectations)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체상 관련 변인을 연구함에 있어 성별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이 우세하다(Cash, 2011).

서구의 축적된 연구 성과에 비하면, 체형인식, 체형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서경현, 이재구, 2003). 특히 신체상(body image)과 자아상(self image)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달하는 사춘기에는 주관적으로 인식한 체형이 자아 전반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이혜원 외, 2008),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체형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김희선, 김영란, 2010; 남수정, 박중호, 2013; 서경현, 이재구, 2003),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거나 단순히 변수 간 관련성만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이론적으로 타당한 모형을 설정하고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모형이 남녀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한 연구도 아직 없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이 객관적인 체형 조건과 별개로 외모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인 체형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정상체중 범주에 해당하는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체중 중학생의 과체중인식 및 저체중인식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체형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왜곡된 체형인식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한국 중학생들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의 유능성과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Coopersmith, 1967) 또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Rosenberg, 1989) 등으로 정의된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내적 자원으로 여겨지면서, 국내 연구자들은 개인, 가정, 학교 수준에서 아동·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다양한 예측요인을 탐색해왔다. 정익중(2007)에 의하면, 횡단 자료를 분석했던 기존 연구들에서는 성별, 신체적 매력,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 태도, 또래 관계, 학업 성취 등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어 왔으며,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의 3개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매력, 부모자녀애착, 학교애착, 학업성취 등이 한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단계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신체적 매력은 몸무게, 키, 얼굴 생김새 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각각 역점수화하여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몸무게와 키를 함께 고려한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개인적 수준에서 한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arter(1993)는 아동·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적 흐름의 원류로 James(1892)와 Cooley(1902)를 제시했다. 먼저, James에 의하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스스로 유능하다고 인지하면 전반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지지만, 해당 영역에서 이상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지하면 전반적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Harter, 1993). 반면, Cooley는 거울에 비친 자아(looking-glass self)라는 개념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사회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중요한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이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Harter, 1993). 외모가 개인의 능력의 척도로 간주되고 외모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James의 인지적 과정으로도, Cooley의 사회적 과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키와 몸무게가 불균등하게 급증하고 몸매의 변화를 야기하는 신체적 성숙이 일어나면서,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다(Harris, King & Gordon-Larsen, 2005). James의 설명에 의하면, 외모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청소년기에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상적인 몸매 기준에 자신의 체형이 부합한다고 인지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이고, 자신의 체형이 이상적인 몸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지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것이다. 반면 Cooley의 설명에 의하면, 청소년은 부모, 교사, 또래 등 중요한 타인이 자신의 외모와 체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James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아동·청소년의 영역별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연구해온 Harter(1993)는 학업, 운동, 대인관계, 행동 등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외모 영역에서의 자기 평가가 전반적 자아존중감과 가장 높고 꾸준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평가는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외모보다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Clay, Vignoles & Dittmar, 2005). 이에 대해 Harter(1993)는 외모는 다른 영역들과 달리 항상 자신과 타인에게 노출되고 관찰되는 편재적 속성(omnipresent feature of the self)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James의 자아존중감 개념과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 2. 체형만족도의 매개효과

한편,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인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체상이라는 개념과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체상(body image)이란 자신의 크기, 무게, 기타 신체 부분에 대한 평가로 정의된다(Thompson, 1990).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Sociocultural Perspectives on Body Image)은 서구 신체상 연구에서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관점으로서, 이 관점에 의하면 특정 문화에는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준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매체를 통해 개인에게 전달되어 내재화되며, 자신의 신체상이 이상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신체상에 불만족하게 되고, 이러한 불만족은 전반적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Tiggemann, 2011).

신체를 구성하는 여러 측면 중에서도 신체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한 체형(body shape)은 신체상 관련 문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앞서 소개한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Thompson, 1990). 주관적인 체형인식은 단순히 자신의 체형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라기보다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이상적 체형 기준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을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Harris et al., 2005). 그리고 이와 같은 체형인식은 체형에 대한 심리적 만족 정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신의 체형이 이상적인 체형과 일치한다고 인식하면 체형만족도가 높아지고, 불일치한다고 인식하면 체형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Cash & Szymanski, 1995; Furnham, Badmin & Sneade, 2002). 한편,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은 자아 전반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확대되므로(Harter, 1993), 높은 체형만족도는 높은 자아존중감으로, 낮은 체형만족도는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Thompson, 1990). 실제로 서구의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의 체형만족도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꾸준히 밝혀왔다(Williams & Currie, 2000). 종합하면, 청소년의 주관적인 체형인식은 사회문화적으로 이상화된 체형과의 비교를 통해 체형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주관적인 체형인식과 체형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충청 지역 고등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형인식을 저체중, 표준체중, 과체중인식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체형만족도가 다른지 검증한 결과, 체형만족도는 과체중인식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았다(김희선, 김영란, 2010). 한편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 특성을 통제하고 체형인식과 체형만족도로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형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체형인식, 체형만족도, 그리고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던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 의해 청소년의 체형인식이 체형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결국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체형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 3. 성별 차이

체형인식이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체형만족도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남녀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구 신체상 연구에서 젠더(gender) 관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다. 한편에는 체형인식과 체형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는 연구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지만 체형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높이거나 낮추는 체형인식의 유형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연구자들이 있다.

전자는 서구 신체상 연구의 전통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부류로서, 앞서 언급한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잘 적용된다고 보는 연구자들이다. 이들은 서구 사회에서 남성의 가치는 지적인 능력으로, 여성의 가치는 신체적 매력으로 평가 받아왔으며,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대상화는 여성 스스로의 자기대상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Bordo, 2003; Fredrickson & Roberts, 1997; McKinley, 2011).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겪는 이유를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으로 설명한 Fredrickson과 Roberts(1997)는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게 되고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불안을 자주 느끼게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20세기 중 후반부터 TV나 잡지 등의 대중매체에서 지나치게 마르고 가녀린 여성의 신체를 이상적으로 묘사하면서, 서구의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인식하였고 체형에 불만족하게 되었으며 신체·심리·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었다(Bordo, 2003; Rhode, 2010). 이러한 현상에 대해 Rodin et al.(1984)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 체중과 체형은 “여성들의 규범적 불만(normative discontent for women)”이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Thompson, 1990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에는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Pope et al.(2002)은 외모에 대한 남성의 집착 및 불만족을 의미하는 아도니스 콤플렉스(Adonis complex)라는 개념을 통해, 남성들 역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몸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자아존중감의 하락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남성의 몸매와 여성의 몸매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체형인식이 체형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Cash(2011)에 의하면 미의 기준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메시지는 젠더 역할에 기초한 기대, 즉 어떤 신체가 여성적인지 또는 남성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전달한다. 실제로 개인의 성역할 고정관념 정도와 체형간의 연관성을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여성은 마른 체형일 확률이 높았고 남성은 적당한 근육질 체형일 확률이 높았다(Guy, Rankin & Norvell, 1980).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여성의 마른 몸매를 이상화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과체중인식이 낮은 체형만족도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남성의 근육질 몸매를 이상화하는 사회에서 남성의 저체중인식 역시 낮은 체형만족도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Tiggemann, 2011).

청소년의 체형인식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한 연구에서 중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은 저체중을, 남학생은 정상체중을 이상적 체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 체형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김명희 외, 2012). 성별에 따라 중학생의 체형인식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남녀 모두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여학생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명희 외, 2012; 김영란 외, 2011; 김정순, 김영남, 2009; 이예중, 이숙정, 김창규, 2012). 최근 ‘아동·청소년 건강 및 생활습관 조사’의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비만지위, 주관적인 체형인식, 그리고 성별에 따라 신체상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체형인식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신체상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수정, 박종호, 2013). 즉, 남학생의 경우 자신을 저체중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체상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았던 반면, 여학생은 자신을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체상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저체중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녀 중학생의 체형인식, 체형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검증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성별에 따른 변수 값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각 성별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젠더 관점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정상체중 범주에 속하는 중학생의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체형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론적 틀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2010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상체중 중학생의 과체중인식 및 저체중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형만족도가 매개하는가? (2) 정상체중 중학생의 과체중 및 저체중인식, 체형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정상체중 중학생의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와 성별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개념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자아존중감이고, 독립변수는 저체중인식 및 과체중인식이며, 매개변수는 체형만족도이다. 또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밝혀진 학년, 가정형편, 부모양육태도, 학업성적, 또래관계 등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은 기타 외생변수로 투입되었다(정익중, 2007). 한편,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가 남녀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성별을 집단 구분 변수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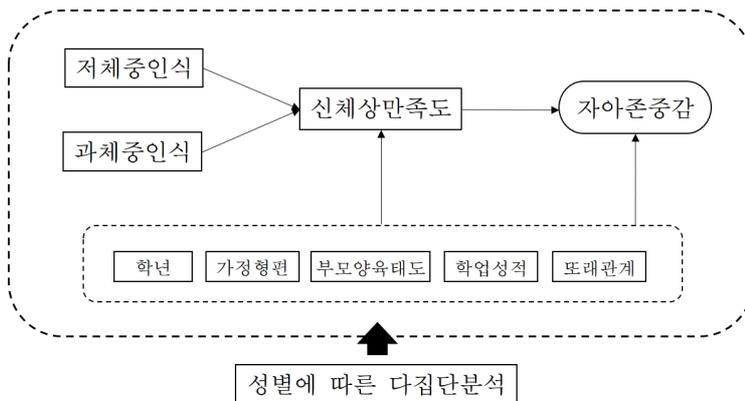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개념 모형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수행한 ‘2010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9,8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의 모집단은 2009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12개 시도 초·중·고등학생이며,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최인재, 2011).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남녀 학생 모두 성장 급등을 경험하고 신체상과 자아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달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 2, 3학년 3,254명을 연구의 초점 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이혜원 외, 2008), 주요 독립변수인 주관적 체형인식의 영향력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임상적 기준에 따라 저체중과 과체중 및 비만으로 분류되는 688명을 제외하고 정상체중 중학생 2,566명만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상체중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조사 참여자가 직접 보고한 키와 몸무게에 기초하여 체중(kg)/신장(m)<sup>2</sup> 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이 보고한 키와 몸무게는 실측된 신장과 체중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전체 조사 참여자의 체질량지수 분포는 ‘2007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에서 제시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신뢰할 만한 척도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에서 제시한 참고치에 근거하여 체질량지수가 동일 연령, 동일 성별 집단 내에서 제5백분위수 이상 제85백분위수 미만인 정상체중 집단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은 연구 대상의 성별 및 학년 분포와 각 집단별 체질량지수의 최솟값 및 최댓값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 대상의 성별과 학년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체질량지수는 최소 15.73에서 최대 23.69로 자신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할 때 모두 정상체중 범위에 속했다.

표 1  
연구 대상의 성별 및 학년 분포

	종 1	종 2	종 3	합계
남 (BMI 범위)	491 (19.1%) (15.82~23.88)	416 (16.2%) (16.33~24.34)	432 (16.8%) (16.85~24.69)	1339 (52.2%)
여 (BMI 범위)	366 (14.3%) (15.73~22.76)	469 (18.3%) (16.26~23.23)	392 (15.3%) (16.80~23.67)	1227 (47.8%)
합계	857 (33.4%)	885 (34.5%)	824 (32.1%)	2566 (100.0%)

###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883이다.

독립변수인 체형인식은 자신의 체형(몸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적당하다'고 답한 경우 '정상체중인식'으로, '매우 마른 편' 또는 '마른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저체중인식'으로, '살 찐 편' 또는 '매우 살 찐 편'이라고 답한 경우 '과체중인식'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체중인식과 과체중인식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정상체중인식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저체중인식 및 과체중인식에 대한 가변수(dummy variable)를 각각 생성하였다.

매개변수인 체형만족도는 자신의 체형(몸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는 단일 문항에 대해 1='전혀 만족하지 못하다'부터 4='매우 만족한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타 외생변수로는 체형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학년, 가정형편, 부모양육태도, 학업성적, 또래관계 등이 투입되었다. 가정형편은 연구 대상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1='매우 못산다'부터 7='매우 잘 산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부모양육태도는 '부모님은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심',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심', '따뜻하게 대해주심', '고민을 들어주심',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심', '실망하고 좌절할 때 위로해주심' 등의 6개 항목을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938). 학업성적은 연구 대상이 보고한 본인의 학업성적을 1='매우 못하는 수준'부터 5='매우 잘하는 수준'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래관계는 '학교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음',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함',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냄' 등 교우관계를 측정하는 3개 항목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857).

####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방법을 활용하여 그림 1에서 제시한 연구의 개념 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각 측정변수의 결측 여부를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로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변수의 결측 여부는 다른 변수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단계에서는 163개의 목록별 결측 사례를 제외한 2,403명의 자료만을 활용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Bollen(1989)이 제시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측정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한 뒤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Kline, 2010에서 재인용). 모수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chi^2$ ) 검증 방법과 함께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참고했다. 모형적합도 수용 기준은 표본크기가 250 이상이고 측정변수가 12개 이상 30개 미만인 경우,  $\chi^2$  값은 유의할 것으로 기대되며, CFI 또는 TLI가 .92 이상이고 RMSEA가 .07 이하여야 한다는 Hair et al.(2006)의 제안을 따랐다. 한편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을 1000회 실시하고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였다.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은 SPSS 21, 구조방정식모형 및 다집단분석은 AMOS 21을 이용했다.

### V. 연구 결과

#### 1.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표 2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연구 대상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69점에서 2.95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체형만족도의 평균은 2.41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정상체중 범주에 속하는 전체 연구 대상 중에 자신을 정상체중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쳤으며, 33.2%가 과체중, 19.4%가 저체중이라고 인식했다.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

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분석 결과 (n=2566)

변수명		범위/범주	평균(SD)/사레수(%)	왜도	첨도	결측사레수(%)
종속 변수	자아존중감1	1~4	2.83 (0.83)	-.473	-.193	4 (0.2%)
	자아존중감2	1~4	2.69 (0.80)	-.244	-.369	6 (0.2%)
	자아존중감3	1~4	2.95 (0.75)	-.587	.417	7 (0.3%)
	자아존중감4	1~4	2.86 (0.79)	-.385	-.196	8 (0.3%)
	자아존중감5	1~4	2.81 (0.82)	-.398	-.259	8 (0.3%)
독립 변수	체형인식	0=정상체중인식	1142 (44.5%)			
		1=저체중인식	499 (19.4%)			74 (2.9%)
		1=과체중인식	851 (33.2%)			
매개 변수	체형만족도	1~4	2.41 (0.72)	.160	-.211	31 (1.2%)
기타 외생 변수	가정형편	1~7	4.31 (1.12)	.106	.416	25 (1.0%)
	부모양육태도1	1~4	2.89 (0.81)	-0.42	-0.26	15 (0.6%)
	부모양육태도2	1~4	2.85 (0.83)	-0.37	-0.42	17 (0.7%)
	부모양육태도3	1~4	3.08 (0.74)	-0.65	0.45	17 (0.7%)
	부모양육태도4	1~4	2.76 (0.88)	-0.31	-0.60	17 (0.7%)
	부모양육태도5	1~4	2.98 (0.80)	-0.60	0.08	18 (0.7%)
	부모양육태도6	1~4	2.88 (0.85)	-0.44	-0.37	19 (0.7%)
	학업성적	1~5	2.86 (1.01)	.095	-.386	12 (0.5%)
	또래관계1	1~4	3.17 (0.75)	-0.83	0.73	22 (0.9%)
	또래관계2	1~4	3.14 (0.74)	-0.76	0.69	20 (0.8%)
또래관계3	1~4	3.19 (0.72)	-0.77	0.73	22 (0.9%)	

한편 성별에 따라 독립변수인 체형인식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자신을 정상체중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남녀 집단 모두 절반에 못 미쳤는데,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42.4%)이 남성(26.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을 저체중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남성(28.4%)이 여성(10.9%)보다 높았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chi^2=140.38, p<.001$ ).

표 3  
체형인식과 성별의 교차분석 결과

	저체중인식	정상체중인식	과체중인식	합계
남	369 (28.4%)	586 (45.0%)	346 (26.6%)	1301 (100.0%)
여	130 (10.9%)	556 (46.7%)	505 (42.4%)	1191 (100.0%)
합계	499 (20.0%)	1142 (45.8%)	851 (34.1%)	2492 (100.0%)
$\chi^2$ 검증 결과	$\chi^2=140.38 (df=2) p<.001$			

또한 목록별 결측값이 있는 163사례를 제외하고 연구모형에 투입된 양적 변수들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 간에는 모두 .5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 사이에도 대부분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 2. 체형만족도의 매개효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수의 측정변수로 관측된 자이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를 각각 잠재변수화하고 측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 세 개의 잠재변수로 구성된 측정모형에 대해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크기에 민감한  $\chi^2$  값( $\chi^2=911.307, df=74, p<.001$ )을 제외한 다른 주요 적합도 지수가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CFI=.963, TLI=.954, RMSEA=.069).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자이존중감 5문항(.746~.826), 부모양육태도 6문항(.816~.894), 또래관계 3문항(.753~.877)에서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절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연구질문(1)과 관련하여 정상체중 중학생의 체형인식이 자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체형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 모형에서 성별은 외생변수로 투입되었으며, 목록별 결측사례를 제외한 남녀 전체 집단( $n=2,403$ )의 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구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표본크기에 민감한  $\chi^2$  값( $\chi^2=1288.709, df=151, p<.001$ )을 제외하고, 다른 주요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CFI=.954, TLI=.936, RMSEA=.056). 다음으로 구조

모형의 경로계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저체중인식( $\beta=-.039$ ,  $p<.05$ )과 과체중인식( $\beta=-.418$ ,  $p<.001$ )은 체형만족도에 각각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자신을 저체중 또는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자신을 정상체중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에 비해 체형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이다. 또한 체형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101$ ,  $p<.001$ ), 청소년의 체형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살펴보면, 저체중인식( $\beta=.015$ ,  $p=.470$ )이나 과체중인식( $\beta=.019$ ,  $p=.380$ )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p$	
← 저체중인식	-0.070	-0.039	0.034	-2.046	0.041	
← 과체중인식	-0.636	-0.418	0.029	-22.295	***	
← 성별	-0.295	-0.204	0.026	-11.383	***	
체형만족도 $R^2=.279$	← 학년	-0.076	-0.085	0.016	-4.870	***
← 가정형편	0.045	0.069	0.012	3.789	***	
← 부모양육태도	0.122	0.113	0.021	5.667	***	
← 학업성적	-0.015	-0.021	0.013	-1.123	0.262	
← 또래관계	0.018	0.015	0.024	0.765	0.444	
← 저체중인식	0.023	0.015	0.032	0.723	0.470	
← 과체중인식	0.026	0.019	0.030	0.878	0.380	
← 체형만족도	0.089	0.101	0.019	4.624	***	
← 성별	0.013	0.010	0.025	0.519	0.604	
자아존중감 $R^2=.325$	← 학년	0.056	0.071	0.015	3.737	***
← 가정형편	0.037	0.066	0.011	3.341	***	
← 부모양육태도	0.247	0.260	0.021	11.761	***	
← 학업성적	0.118	0.188	0.012	9.511	***	
← 또래관계	0.310	0.296	0.024	13.126	***	

\*\*\* $p<.001$

다음으로,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체형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랩을 실시하고 저체중인식과 과체중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 표 5에 제시한 것처럼, 저체중인식은 체형만족도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04, p < .05$ ). 마찬가지로 과체중인식은 체형만족도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beta = -.042, p < .01$ ). 저체중인식과 과체중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체형만족도는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 분해 결과

		저체중인식			과체중인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자아 존중감	직접효과	.023	.015	.015	.026	.019	.019
	간접효과	-.006*	-.004	.004	-.057**	-.042	.013
	총효과	.017	.011	.031	-.031	-.023	.028

\* $p < .05$ , \*\* $p < .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상체중 중학생의 저체중인식과 과체중인식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체형만족도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자신을 저체중 또는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자신을 정상체중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에 비해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체형만족도가 낮을수록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도 낮았다는 것이다.

### 3. 성별 차이

체형인식, 체형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성별 집단 간 측정동일성을 검토하였다. 앞에서 분

석한 측정모형에서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남녀 집단에서 각각 동일하다고 제약한 ‘요인부하량 동일성 제약 모형’과 요인부하량을 자유롭게 추정된 ‘비제약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의  $\chi^2$  차이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chi^2=21.530$ ,  $\Delta df=11$ ,  $p=.028$ ), 측정동일성 검증에 있어서도 표본 크기가 큰 경우  $\chi^2$  검증 결과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다른 모형적합도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표 6에서 제시하였듯이 두 모형 간에 다른 적합도 지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므로 성별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표 6  
성별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chi^2$	SRMR	CFI	TLI	RMSEA
(1) 비제약 모형	1021.421 ( $df=148$ , $p<.001$ )	.022	.961	.952	.050
(2) 요인부하량 동일성 제약 모형	1042.951 ( $df=159$ , $p<.001$ )	.022	.981	.955	.048
(2) - (1) $\chi^2$ 차이검증	$\Delta\chi^2=21.530$ ( $\Delta df=11$ , $p=.028$ )				

다음으로 체형인식이 체형만족도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에 대한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 모형에서 성별은 집단 구분 변수로 활용되었으며, 남학생( $n=1,240$ )과 여학생( $n=1,663$ )의 자료를 각각 분석에 활용하였다. 앞서 성별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구조모형 분석 단계에서는 남녀 집단에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구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표본크기에 민감한  $\chi^2$  값( $\chi^2=1430.763$ ,  $df=291$ ,  $p<.001$ )을 제외하고 다른 주요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SRMR=.020, CFI=.953, TLI=.939, RMSEA=.040). 집단별 경로계수의 추정 결과와 차이의 임계치(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CRD)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성별 집단 간 주목할 만한 차이는 저체중인식이 체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발견되었다. 남

학생 집단에서 저체중인식은 체형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beta = -.125, p < .001$ ), 여학생 집단에서 저체중인식은 체형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95, p < .001$ ). 저체중인식이 체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CRD=5.578, p < .001$ ). 즉, 자신을 저체중이라고 인식하는 남학생은 자신을 정상체중이라고 인식하는 남학생에 비해 체형만족도가 낮았지만, 여학생의 경우 이와 반대로 자신을 저체중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정상체중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체형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과체중인식이 체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 $\beta = -.420, p < .001$ )과 여학생( $\beta = -.436, p < .001$ ) 모두에게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계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RD=1.097, p > .05$ ).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자신을 정상체중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에 비해 체형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체형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남학생( $\beta = .106, p < .001$ )과 여학생( $\beta = .089, p < .01$ ) 모두에게 정적으로 유의했으며, 두 집단의 계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CRD=-.506, p > .05$ ), 남녀 모두 체형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체중인식이나 과체중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성별 집단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결과

경로	남				여				CRD
	비표준 회계수	표준화 계수	SE	p	비표준 회계수	표준화 계수	SE	p	
← 저체중인식	-0.194	-0.125	0.043	***	0.211	0.095	0.058	***	5.578***
← 과체중인식	-0.667	-0.420	0.044	***	-0.604	-0.436	0.037	***	1.097
← 학년	-0.077	-0.091	0.022	***	-0.068	-0.078	0.022	**	0.286
← 가정형편	0.049	0.082	0.016	**	0.033	0.051	0.017	.05	-0.671
← 부모양육태도	0.146	0.142	0.030	***	0.084	0.081	0.030	**	-1.452
← 학업성적	-0.025	-0.037	0.018	.17	-0.003	-0.004	0.019	.88	0.854
← 또래관계	0.011	0.009	0.034	.76	0.031	0.027	0.033	.35	0.426

경로	남				여				CRD	
	비표준 회계수	표준화 계수	SE	p	비표준 회계수	표준화 계수	SE	p		
← 저체중인식	0,027	0,019	0,041	.50	0,015	0,008	0,056	.79	-0,173	
← 과체중인식	0,054	0,036	0,045	.23	0,004	0,003	0,039	.92	-0,841	
자아 존중감	← 체형만족도	0,100	0,106	0,027	***	0,080	0,089	0,028	**	-0,506
	← 학년	0,065	0,082	0,021	**	0,046	0,059	0,022	.03	-0,643
R <sup>2</sup> =.352(남)	← 가정형편	0,019	0,034	0,015	.21	0,058	0,099	0,016	***	1,709
R <sup>2</sup> =.314(여)	← 부모양육태도	0,219	0,227	0,029	***	0,278	0,300	0,030	***	1,453
	← 학업성적	0,138	0,216	0,017	***	0,094	0,152	0,018	***	-1,803
	← 또래관계	0,377	0,349	0,033	***	0,245	0,242	0,032	***	-2,899**

\*\*p<.01 \*\*\*p<.001

다음으로 체형인식이 체형만족도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남녀 각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붓스트랩을 통한 효과 분해를 실시하였다. 표 8에 제시한 것처럼, 저체중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적으로 유의했고( $\beta=.013, p<.01$ ), 여학생 집단에서는 정적으로 유의했다( $\beta=.009, p<.01$ ). 그러나 과체중인식이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 $\beta=-.045, p<.01$ )과 여학생( $\beta=-.039, p<.05$ ) 집단에서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8

성별 집단별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 분해 결과

		직접효과	저체중인식			과체중인식		
			비표준회계수	표준화계수	SE	비표준회계수	표준화계수	SE
자아 존중감	남	직접효과	.027	.019	.039	.054	.036	.045
		간접효과	-.019**	-.013	.007	-.066**	-.045	.019
		총효과	.008	.006	.039	-.012	-.008	.043
자아 존중감	여	직접효과	.015	.008	.050	.004	.003	.039
		간접효과	.017**	.009	.008	-.048*	-.039	.019
		총효과	.032	.016	.050	-.044	-.036	.035

\*p<.05, \*\*p<.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형만족도에 동일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체형만족도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신을 저체중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남학생에게는 체형만족도를 낮추어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지만, 여학생의 저체중인식은 체형만족도를 높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체형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 참여자 중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에서 제시한 체질량지수 참고치에 의해 정상체중으로 분류되는 중학생 2,403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형인식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객관적으로 정상체중 범주에 속하는 전체 연구 대상 중 남학생의 45%, 여학생의 46.7%만이 자신을 정상체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자신의 객관적인 체형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음을 보였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보건복지부, 2014a; 이지은, 2006; 장현숙, 2006; 정인경, 2006). 주관적인 체형인식은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이상적 체형 기준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을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기에(Harris et al., 2005), 정상체중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정상체중으로 인식하지 않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인지적 오류에 기인한다기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체형인식과 성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자신을 저체중으로 인식하는 비율(28.4%)과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비율(26.6%)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여학생 집단에서는 저체중인식 비율(10.9%)에 비해 과체중인식 비율(42.4%)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체형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던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영란 외, 2011; 송현정, 문현경,

2014). 우리나라 남자 중학생은 정상체중을, 여학생은 저체중을 가장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김명희 외, 2012; 김정순, 김영남, 2009), 본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는 한국의 남녀 청소년이 각 성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이상적 체형에 비추어 자신의 몸매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주요 예측 변인들을 고려한 뒤에도, 저체중인식 및 과체중인식은 체형만족도를 완전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외모 관련 변인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이혜원 외, 2008; 정익중, 2007; Clay et al., 2005; Harter, 1993; Williams & Currie, 2000). 이는 한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하고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주관적인 체형인식과 체형만족도 등의 변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형관련 변인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이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Cash & Szymanski, 1995; Thompson, 1990; Tiggemann, 2011). 이 관점은 외모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의 상황을 더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최근 전 세계 15개국 아동(만 10세, 12세)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들은 조사 대상국 중에서 자신의 몸과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es & Main, 2015).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도 도달하기 어려운 체형을 이상화하고 이상적인 몸매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환경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상과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특히 실제 체형이 정상체중 범위에 속하더라도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체형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 같은 위험 요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체중인식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형만족도에 동일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반면, 저체중 인식은 남학생의 체형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에게는 오히려 체형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이상적 몸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동시에(Pope et al., 2002), 여성과 남성의 이상적 몸매가 성역할 기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Cash, 2011; Tiggemann, 2011). 이는 한국 청소년의 체형인식, 체형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성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특히 저체중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이가 청소년 발달의 다른 영역에서 관찰되는 성별 차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탐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왜곡되지 않은 체형인식과 긍정적인 신체상을 확립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정상체중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객관적으로 저체중이나 과체중에 해당하는 청소년들도 무리한 체중조절보다는 연령에 맞는 적절한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체형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사회문화적으로 건강한 신체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도달하기 어려운 몸매를 이상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남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저체중 몸매를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지나친 다이어트와 저체중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이지은, 2006).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신체가 건강한 신체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신체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외모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젠더 관점을 적용하여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반영한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고,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러한 모형이 한국의 중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변인의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체형인식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만을 확인하거나, 여러 변인 중에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가 무엇인

지 탐색하는 것에 머물렀던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평균이나 비율 차이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거나 남녀 중 한 집단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던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실증적으로도 검증된 모형에 대해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고 남녀 집단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의 초점 대상이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본 연구의 모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횡단 자료를 분석했기에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발달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1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20대 초반의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패널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더욱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체형인식과 체형만족도는 각각 자기보고식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체형인식과 체형만족도를 측정하는 단계에서 동일방법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측정 방법 분산을 통제하는 분석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체형인식이 체형만족도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기제에만 주목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제가 청소년의 건강 행동 및 객관적인 건강 상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기란, 최기호 (2009). **대중문화사전**. 서울: 현실문화연구.
- 김명희, 최미경, 김은영, 윤영희 (2012). 충남 지역 남녀 중학생의 체형 인식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5(2), 338-347.
- 김영란, 장현숙, 안미령 (2011). 대구, 경북지역 중학생의 성별, 체중군에 따른 체형인식, 정서상태, 식생활태도 및 영양소 섭취상태. **교과교육학연구**, 15(3), 633-655.
- 김정순, 김영남 (2009). 남녀 중학생의 체형인식 및 식생활 태도와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1), 123-139.
- 김희선, 김영란 (2010). 연구논문: 충청지역 고등학생의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6(4), 941-948.
- 남수정, 박종호 (2013). 연구교신: 청소년의 비만도와 주관적 체형 인식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비만학회지**, 22(4), 251-253.
- 박은정, 정명선 (2013). 외모에 대한사회문화적 영향이 여대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21(3), 361-375.
- 보건복지부 (2014a). 지역사회건강조사: 시군구별 체중조절 시도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H\\_OBE\\_CONTROL&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H_OBE_CONTROL&conn_path=I3)에서 2015년 7월 27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4b).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34&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34&conn_path=I3)에서 2015년 7월 27일 인출.
- 서경현, 이재구 (2003). 초, 중, 고, 대학생들의 체형 인식 및 체형에 대한 불만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탐색. **한국발육발달학회지**, 11(2), 77-88.
- 송현정, 문현경 (2014). 서울 소재 일부 중학교 여학생의 식사 장애 위험 정도에 따른 체형인식 및 영양섭취 실태. **대한보건연구**, 40(2), 13-29.
- 이예종, 이숙정, 김창규 (2012). BMI 와 주관적 체형인지에 따른 한국 청소년의 체중조절행동: 제6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0(3), 227-232.

- 이지은 (2006). 중학생의 체형인식 일치여부에 따른 체형만족도, 체중조절 행태 및 식이장애 수준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24(1), 63-77.
- 이혜원, 이봉주, 김혜래, 오승환, 정익중, 하승수 외 (2008). **청소년권리와 청소년복지**.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임희진, 박형란, 구현경 (2009).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연구보고 09-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현숙 (2006). 중학생들의 비만도에 따른 체형인식, 영양지식, 영양소 섭취상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97-110.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정인경 (2006). 남자 중학생들의 비만도에 따른 체형인식 및 체중조절 행태. **한국교육문제연구**, 24(1), 31-39.
- 조윤주 (2009). 외모 스트레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을 매개 변인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8), 87-99.
- 최인재 (2011).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주된응답, 13~24세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2FA141R&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2FA141R&conn_path=I3)에서 2015년 7월 27일 인출.
- 통계청 (2014). 사회조사: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주된응답, 13~24세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4FA141R&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4FA141R&conn_path=I3)에서 2015년 7월 27일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NYPI\\_40201Y2011Q39&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NYPI_40201Y2011Q39&conn_path=I3)에서 2015년 7월 27일 인출.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Bordo, S. (200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박오복 역.). 서울: 또하나의문화. (원저 1993 출판)

- Cash, T. F. (2011). Cognitive-behavioral perspectives on body image. In T. F. Cash, & L. Smolak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nd ed, pp.39-47).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sh, T. F., & Smolak, L. (2011).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sh, T. F., & Szymanski, M. L. (1995).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ody-image ideal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4(3), 466-477.
- Clay, D., Vignoles, V. L., & Dittmar, H. (2005). Body image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 girls: Testing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facto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4), 457-477.
- Cooley, C.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Vol 23). San Francisco: WH Freeman.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Furnham, A., Badmin, N., & Sneade, I. (2002). Body image dis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s in ea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reasons for exercise.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6), 581-596.
- Guy, R. F., Rankin, B. A., & Norvell, M. J. (1980). The relation of sex role stereotyping to body image. *The Journal of Psychology*, 105(2), 167-173.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Vol. 6). San Francisco: Pearson Prentice Hall.
- Harris, K. M., King, R. B. & Gordon-Larsen, P. (2005). Healthy habits among adolescents: Sleep, exercise, diet, and body image. In K. A. Moore, & L. H. Lippman. (Eds.), *What do children need to flourish?* (pp.111-132). New York: Springer.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pp.87-116). New York: Springer.
- James, W. (1892). *Psychology: The briefer course*. New York: Henry Holt.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cKinely, N. M. (2011). Feminist perspectives on body image. In T. F. Cash, & L. Smolak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pp.48-55,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Pope, H. G., Phillips, K. A., & Olivardia, R. (2002). *The Adonis complex: How to identify, treat, and prevent body obsession in men and boys*. New York: Simon & Schuster.
- Rees, G., & Main, G. (eds) (2015) *Children's views on their lives and well-being in 15 countries: An initial report on the Children's Worlds survey, 2013-14*. York, UK: Children's Worlds Project (ISCWeB).
- Rhode, D. L. (2010). *The beauty bias: The injustice of appearance in life and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권기대 (역) (2011). **아름다움이란 이름의 편견**. 서울: 베가북스.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 Striegel-Moore, R. H., Silberstein, L. R., & Rodin, J. (1986). Toward an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for bulimia. *American Psychologist*, 41(3), 246-263.
- Swami, V. (2006). The influence of body weight and shape in determining female and male physical attractiveness. In M. V. Kines (Ed.), *Body image: New research*(pp.35-61).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 Tiggemann, M. (2011). Sociocultural perspectives on human appearance and body image. In T. F. Cash, & L. Smolak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pp.12-19,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Thompson, J. K. (1990).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Pergamon Press.

Williams, J. M., & Currie, C. (2000). Self-esteem and physical development in early adolescence: Pubertal timing and body imag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2), 129-149.

## ABSTRACT

### Influence of body shape perception on self-esteem among normal-weight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The mediating effect of body shape satisfaction and gender differences

Lee, Juyeon\* · Yoo, Joan P.\*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body shape satisfaction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body shape perception on self-esteem among South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Data from the 2010 Korea Survey of the Health of Youth and Children was utilized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sample consisted of 2,403 adolescents in 7<sup>th</sup>~9<sup>th</sup> grade who were classified as normal-weight by BMI criteria.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showed that perceptions of being both underweight and overweight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dy shape satisfaction, which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Body shape satisfaction was found to fully mediate the influences of perceptions of being underweight and overweight on self-esteem. Additionally, the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by gender showed that perception of being underweight was negatively related to boys' body shape satisfaction and indirectly to their self-esteem. For girls, however, perception of being underweight was positively related to body shape satisfaction and indirectly to self-esteem.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perception of being overweight and body shape satisfaction was not different by gender. Based on these findings, bo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self-esteem, body shape perception, body shape satisfac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ulti-group analysis by gender

투고일: 2015. 9. 14, 심사일: 2015. 11. 2, 심사완료일: 2015. 11. 9

---

\* Seoul National University